

## 2분기 세계 PC시장 출하량 13.9% 증가

세계시장 PC출하량 증감률

업체명	98 2·4분기		98 2·4분기		증감률(%)
	출하량(대)	점유율(%)	출하량(대)	점유율(%)	
컴팩	2백63만4천	12.5	2백35만	12.7	12.1
델	1백72만2천	8.2	98만4천	5.3	74.9
IBM	1백51만2천	7.2	1백59만6천	8.6	-5.3
HP	1백16만2천	5.5	98만6천	5.3	17.9
패커드벨NEC	94만	4.4	95만7천	5.2	-1.8
기타	1천3백15만3천	62.3	1천1백67만1천	62.9	12.7
합계	2천1백12만5천	100.0	1천8백54만6천	100.0	13.9

(자료 : 데이터퀘스트)

지난 2·4분기 세계 PC시장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13.9%의 안정된 증가율을 보였다고 미국 시장조사회사인 데이터퀘스트가 밝혔다.

이는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부진을 면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시장이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또다른 시장조사회사인 IDC가 이 기간 유럽과 미국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17.8%와 10%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유사한 결과다.

업체별로는 컴팩이 2백63만대를 출하해 12.7%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지켰

다. 델은 1백72만대(8.2%)로 2위, IBM은 1백51만대(7.2%)로 3위를 차지했다. 휴렛팩커드(HP)와 패커드벨NEC도 각각 1백16만대(5.5%)와 94만대(4.4%)를 출하, 5대 업체에 속했다. 한편 IDC는 2·4분기 세계 PC시장 증가율을 데이터퀘스트보다는 다소 낮은 7%라

고 발표했다.

### 美 팩시밀리시장 '장미빛'

메시지 전달도구로 전자우편의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시밀리 역시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유력한 문서전송 수단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인 데이터퀘스트에 의하면 올해 미국 팩시밀리 시장의 총매출은 지난해 26억달러보다 17.7% 증가한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올해 5백50만대 시장규모에서 오는 2002년에는 7백5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종별로는 다기능(MFP) 및 단일기능 제품을 포함한 퍼스널·로앤드 팩시밀리의 판매가 지난 96년 1백60만대에서 지난해에는 2백90만대로 81% 늘어났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도 44%가 증가했다.

데이터퀘스트는 가정이나 「SOHO」등의 MFP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 바람을 타고 퍼스널·로앤드 팩시밀리는 당분간 판매 및 매출액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급 및 하이엔드 제품인 워크그룹용 팩시밀리(MFP포함)는 보험세를 나타내 지난 96년과 97년 합쳐 52만5천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높은 가격으로 매출액에서는 지난해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올해부터 2002년까지 총누적매출도 5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 美 디지털 인증사업 활기

IBM, 인텔, 베리사인 등 미국 컴퓨터 업체들과 보안 업체들이 디지털인증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미「C넷」이 최근 전했다.

이들의 디지털인증사업 진출은 최근 가상시설망(VPN)과 전자상거래 등의 활용이 늘어남

에 따라 디지털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인증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시장규모가 오는 2000년경에는 9천2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IBM은 디지털인증 사업이 자사가 올해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e-business」사업을 적극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디지털인증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IBM은 인터넷 보안 업체인 이퀴팩스와 제휴, 디지털인증 소프트웨어인「볼트 레지스트리」를 이달 안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제품은 인터넷, 엑스트라넷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 사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디지털인증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잠금장치와 지불제도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온라인 뱅킹 및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도 디지털인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인텔은 인터넷 보안업체인 벨리서트와 제휴, 벨리서트의 디지털인증 기술인「서티피케이션 벨리태이션」을 탑재한 보안소프트 개발 키트를 오는 하반기 중으로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디지털인증 소프트웨어를 개발키 위한 개발틀로 다양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인증의 호환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암호업체인 베리사인도 보안 업체인 시큐어IT를 인수,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디지털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내년 초까지 디지털인증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차세대 반도체장비 개발 활기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차세대 장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업체는 반도체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세미콘 웨스트」에 참가해 구리칩 및 초미세 회로 가공분야의 다양한 차세대 반도체 장비를 선보이고 향후 시장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노벨러스 시스템스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각각 신규장비 수요 확보를 겨냥, 이번 전시회에 그동안 개발해 온 구리칩 제조장비들을 대거 출품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벨러스는 업계 최초로 구리칩 제조장비 일체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램리서치, 인티그레이티드 프로세스 이퀴프먼트 등 외부 업체의 지원을 받아 화학기계적 평탄화장치(CMP), 웨이퍼 연마장치, 물리

적 증기증착 장치(PVD) 등 핵심장비 일체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2백mm와 3백mm 웨이퍼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브리지 툴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이번 전시회에서도 스테퍼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업체들이 브리지 장비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어플라이드와 베리안 등 주요 업체들도 브리지 장비를 개발, 전시회에 출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크로스캔, 캐논, ASML 등 일부 업체는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초미세 가공기술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리소그래피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 수명 20%가량 늘린 알칼라 인전지 시판

일본 히타치막셀은 자사의 중전제품에 비해 수명을 20%가량 늘린 단4형 알칼라인전지「뉴알칼리에이스 LR03」를 본격적으로 시판할 계획이다.

히타치막셀은 양극재료와 음극재료를 고밀도로 충전해서 개발한 이 알칼라인전지를 휴대정보단말기나 휴대전화 등 대전류를 필요로 하는 휴대기기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히타치막셀은 이 건전지를 공

급시점에 맞춰 월 1천5백만개씩 생산 할 계획이다.

### 적외선통신 어댑터 개발

일본항공전자공업이 PC와 주변기기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적외선통신 어댑터를 개발, 이 시장에 진출한다.

일본항공전자가 개발한 어댑터는 PC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타입과 차량 주변기기·휴대전화 주변기기·의료기기·자동판매기·계측기기 등의 무선대응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타입 등 두가지다.

두 타입 모두 적외선 통신규격인「IrDA」를 채택해 통신속도는 최대 4Mbps이고, 통신거리는 1m 이내다.

일본항공전자는 이들 제품을 발주업체의 요구에 따라 기능·크기·가격 등을 조정하는 수주 생산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 초미세 기포 이용 세탁기 시판

일본 산요전기는 초미세 기포 효과로 세탁하는 전자동 세탁기를 개발, 본격적으로 시판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산요전기가 이번에 시판하는 세탁기는 기포가 터

져 확산될 때 생기는 충격파의 진동으로 세탁물의 때를 제거하는 것으로 가벼운 때의 경우 세제사용량을 종전의 절반 정도로 절약할 수 있으며 세탁물에 흠집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세탁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세탁용량 8kg급과 7kg급, 6kg 등 3개 기종이며 인버터모터와 사일런트 기어를 채택해 소음을 최소화했다. 또 세탁조 내에서 순환하는 물의 양은 1백24 l로 절수 특성도 실현했다.

### 366MHz 파워PC 발표

미 모토롤러가 3백66MHz 처리속도의 최고속 파워PC를 발표했다.

이 칩은 G3 계열에 속하는「파워PC 750」버전으로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비롯한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에 채용될 예정이다. 이 칩은 고속이면서도 전력소비량이 기존 제품의 절반에 불과해 휴대형 컴퓨터 등 소형 기기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칩이 특히 노트북 시장에서 인텔 제품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텔이 현재 노트북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최고속 칩은 2백66

MHz의 처리속도에 전력소비량이 이번에 발표된 모토롤러 제품의 2배인 7.8W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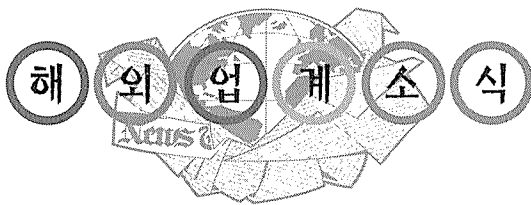
한편 모토롤러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각각 4백MHz와 5백MHz 파워PC를 발표하면서 인텔과의 칩속도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장비 '300mm시대' 눈앞

세계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3백mm 웨이퍼 가공라인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양산용 첨단 장비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지난번, 개최된「세미콘 웨스트 98」전시회에는 스테퍼·고속열처리(RTP)장비와 화학·기계적연마(CMP) 및 라인자동화 설비 등 차세대 반도체장비 분야인 3백mm 웨이퍼에 대응한 양산 제품들이 대거 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반도체 노광장비인 스테퍼의 경우 일본 캐논이 회로선폭 0.18 마이크로에 대응하는 세계 최초의 3백mm 웨이퍼용 스캐닝시스템인「FRP-5000ES2」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격 발표했다. 최근 본격 도입되고 있는 RTP장비 분야는 미국 AG사와 독일 슈테아그가 각각「스타파이어(Starfire)300」 및「AST3000」이



라는 이름의 3백mm 웨이퍼용 제품을 동시에 출시했다.

차세대 반도체 연마기술인 CMP 분야에서 미국 노바가 3백mm 웨이퍼 CMP공정용 컨트롤러를 출시한 가운데 사이백이 「Isoplanar9000」이라는 이름의 3백mm용 CMP 장비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향후 3백mm 웨이퍼 도입시 가장 필수적인 장비로 손꼽히는 자동화 설비 분야의 경우 PRI오토메이션과 콘실리엄사가 3백mm반도체 라인용 컨트롤 시스템 및 로봇장치를 선보였으며 부룩스오토메이션은 3백mm 웨이퍼 핸들링머신을 출시했다.

이와 관련, 미국반도체제조장비·재료협회(SEMI)측의 한 관계자는「이번에 선보인 3백mm용 장비들의 경우 과거 전신된 배타급이나 콘셉트 수준의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 양산용 장비들로 향후 3백mm 시대의 도래를 앞당겨 줄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보가전용 반도체’ 제휴

미국 IBM과 일본 산요전기는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정보가전용 반도체분야에서 제휴했다.

두 회사는 정보가전용 시스템 온칩 사업을 공동추진한다는 방

침 아래 개발·생산·판매를 망라하는 계약기간 5년의 포괄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컨슈머 엔진」이라고 명명된 정보가전용 시스템온칩 시리즈로 두 회사는 오는 2000년까지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 등 약 10개 분야의 제품을 공동 개발해 사업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BM은 산요측에 선풍 0.18 $\mu$ m 미세가공기술을 포함한 설계·디자인 기술을, 산요는 IBM측에 가전분야 기술을 제공한다.

공동 개발한 제품의 생산은 IBM이 담당하며 IBM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생산거점에서 양산된다.

두 회사는 양산된 제품을 산요 전기의 정보가전기기용으로 일부 출하하는 한편 각각의 상표와 판매망을 이용해 외부 판매도 실시한다.

### 백색가전용 시스템LSI 본격 양산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가 백색가전용 시스템LSI를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TI는 최근 가정 소비전력의 약 40%를 차지하는 에어컨과 냉장고에 탑재되는 시스템LSI를 개발, 올해 말부터 텍사스주 델러스공장을 통해 양산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백색가전용 시스템LSI는 지구 온난화 방지대책과 맞물린 가전제품의 저소비전력화 경향에 힘입어 내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유망품목이다.

TI는 이미 일본의 마쓰시타전기·도시바 등 주요 가전업체들과 이 시스템LSI의 채용협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년 가을 이를 탑재한 에어컨·냉장고 신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탑재한 가전제품은 소비전력이 기존제품보다 20~30%적을뿐 아니라 소음도 줄어든다. 예를들어 에어컨의 경우 모터의 회전속도 등을 좀더 미세하게 조절해 효율적인 회전을 실현시켜주기 때문에 불규칙한 회전으로 인해 전력누수가 발생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최대 반도체업체인 NEC도 내년 상반기 중에 백색가전용 시스템LSI의 양산을 시작해 2001년까지 연간 2백만개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도시바와 히타치제작소도 같은 종류의 시스템LSI를 내년 중에 제품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백색가전용 시스템LSI를 둘러싼 세계 주요 반도체업체들간 세력싸움이 내년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 동영상 고속압축 SW 개발

일본 국제전신전화(KDD)의 전액 출자 회사인 KDD연구소가 동영상테이터를 빠른 속도로 압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KDD의 새 소프트웨어는 동영상 압축·복원 국제표준인 MPEG2에 근거해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것으로 영상 안의 물체 이동을 효율적으로 예측하는「최적치예측비디오 부호화」기술을 채택해 영상의 움직임을 탐색하는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압축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또 이전의 영상과 현재 영상간의 비교작업도 간소화해 압축속도를 높일 수 있어 압축시간을 기존 소프트웨어에 비해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압축소프트웨어는 1분 분량의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데 1백분 정도가 걸린다. 이에 반해 KDD의 소프트웨어는 1분간의 동영상을 5분 정도에 압축할 수 있다. KDD는 새 압축소프트웨어를 연내 패키지화해 수십만엔의 가격으로 판매개시할 방침이다.

## 일본컨텐츠업계 MLCC 가격 올릴 듯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전극재료로 사용하는 팔라듐 가격의 급등으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컨텐서업계가 MLCC의 가격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 업체의 가격인상 폭은 10%전후이며 가격인상 시기는 여름휴가 시즌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가 가격인상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수년간 MLCC의 수요는 휴대전화, 디지털AV기기, 노트북PC 등 휴대형기기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반대로 가격은 낮아지는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이후에는 팔라듐의 가격이 4배 가까이 치솟아 컨텐서업체들의 원가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팔라듐의 가격은 지난해부터 전세계 출하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면서 2년전 1g당 4백엔 전후하던 것이 지난해 8월에는 8백엔대로 올랐으며 최근에는 1천6백엔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컨텐서업계에서는 세트업체들과의 가격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팔라

듐 대신 니켈·구리 등을 전극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MLCC를 알루미늄 전해콘덴서나 탄탈륨콘덴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화하는 등 채산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리튬이온전지 사업 강화

일본 NEC가 리튬이온전지 사업을 크게 강화한다.

NEC는 최근 리튬이온전지 생산자회사인 일본의 모리에너지와 캐나다의 모리에너지 리미티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자사의 리튬이온전지 총생산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NEC는 두 자회사가 실시한 총액 1백억엔의 제3차 할당 증자액 가운데 80%를 인수해 지금까지 50%였던 출자비율을 66%로 높이는 한편 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두 자회사의 생산능력을 오는 2001년까지 현재의 월 3백50만개에서 7백만개로 2배가량 확대한다.

NEC는 이번 출자 확대를 통해 두 회사의 사명을 NEC모리에너지와 NEC모리에너지캐나다로 통일해 자사 브랜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 두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지제품은 NEC상표를 달고 출시된다.

NEC모리에너지는 현재 월 2백만개를 생산하고 있는 후지야마공장에 이어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도치키에 새 공장을 건설한다. 새 공장을 통해서도 현재 수요가 늘고 있는 직사각형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할 계획으로 첫째 약 37억엔을 투자해 우선 월 1백만개 규모로 생산을 시작하고 2001년까지 2백50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 페이지프린터사업 세계화 박차

일본 교세라는 인쇄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페이지프린터인「에코시스」의 수요가 전세계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 각지에 판매회사를 설립, 대대적인 판매전략에 나서고 있다.

「일간공업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세라는 최근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지역에 새로운 판매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기존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6개국 판매회사와 함께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 본격적인 프린터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교세라는 판매회사 설립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에서는 대리점 정비를 통해 동유럽지역까지 영업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현재 싱

가포르에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도 판로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 모토롤러, 스타피시 인수

미국 모토롤러가 정보기기용 SW업체인 스타피시SW를 전격 인수했다.

모토롤러는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스타피시와 합병에 합의했으며 현금과 주식을 합쳐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모토롤러가 최근 몇 년동안 성사시킨 M&A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모토롤러와 스타피시는 합병을 통해 차세대 무선단말기를 개발할 방침이며 이 제품은 상호 데이터교환 및 PC에 들어 있는 데이터 자원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첫 제품은 6개월 내에 나올 예정이며 이에 앞서 우선 스타피시의 무선 정보기기용 SW인「트루싱크」가 모토롤러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번 인수는 모토롤러가 개인 휴대단말기(PDA)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현재 스리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 판도에도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모토롤러는 지난달 영국의 PDA업체인 사이언과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가 설립한 핸드헬드 컴퓨터 합작사「심비언」에 지분참여한 바 있다.

## 4.95mm TFT LCD 개발

일본 IBM이 두께가 5mm를 밑도는 업계 최박형 박막트랜지스터(TFT)방식 액정표시장치(LCD)를 개발했다.

이번 IBM의 두께 5mm미만 제품 개발로 TFT방식 LCD는 향후 휴대정보단말기로서의 탑재가 훨씬 용이해져 수요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노트북형 PC의 소형·경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TFT LCD는 색상을 포함한 화질의 우수성 때문에 휴대정보단말기용으로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돼 왔지만 실제로는 두께 문제 등으로 극히 일부 기종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LCD업계는 두께 5mm미만을 공동 목표로 TFT의 박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IBM이 개발한 최박형「TTSV53G」는 12인치형 크기로 두께가 4.95mm여서 종전의 최박형(5.5mm)에 비해 0.55mm 얇으며, 무게도 3백70g으로 이 회사의 종전 최경량 제품에 비해 20%

정도 가볍다. 소비전력도 동일휘도에서 약 10% 절감할 수 있다.

TFT LCD에서는 화면을 밝게 하는 백라이트의 박형화가 가장 어려운데, 일본 IBM은 이번 개발에서 형광관의 빛을 넓혀주는 도광체를 개량해 백라이트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1.7mm로 얇게 하고, LCD 화면부의 화소를 제어하는 구동IC를 유리기판에 직접 부착해 초박형화 실현에 성공했다.

## ‘소니·방송미디어’ 설립

일본 소니가 그룹내 방송사업을 통괄·관리하는 회사를 신설, 방송미디어 사업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소니의 전액출자(1백10억엔)로 설립된 새 회사「소니·방송미디어」는 통신위성(CS) 디지털 방송사인 스카이퍼펙TV 등 방송 관련 회사 약 30개를 일원 관리해 방송부문의「실질적인 본사」로서 기능하며 그룹의 방송미디어 전략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일본의 방송시장은 디지털화 등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2010년에 현재의 2.7배인 9조엔 규모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제조업체에서 방송사업 통괄회사를 설립한 것은 소니가 처음으

로 유망 성장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참여라는 의미로 주목된다.

소니·방송미디어는 우선 소니가 11.37%를 출자해 최대 주주로 돼있는 스카이퍼펙TV를 비롯해 애니메이션·액션·다큐멘터리·엔터테인먼트 등의 프로그램을 스카이퍼펙TV를 통해 방영하는 위탁방송사업자 9개사 등을 직접 통괄할 예정이다. 또 최대 주주가 아닌 일본위성방송(와우와우)과 도쿄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 및 후지텔레비전, 그리고 TV아사히 계열로 신설될 예정인 2개의 방송위성(BS) 디지털 방송사 등에 대해서도 주주로 참여해 소니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 액정 데스크톱PC 8만대 출하

일본 샤프가 액정모니터를 탑재한 데스크톱PC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샤프는 액정 데스크톱PC가 공간절약·저소비전력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기업용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8천대였던 이 제품의 출하규모를 올해 8만대로 10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샤프는 올해 PC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12만대 많은 30만대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자사 주

력제품인 노트북 PC를 22만대, 그리고 나머지를 액정 데스크톱 PC로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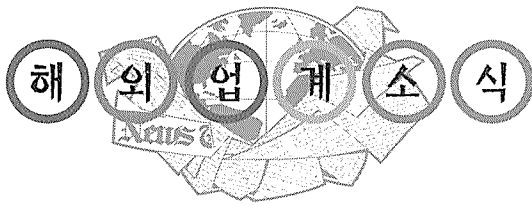
최근 일본 시장에서는 액정 데스크톱 PC가 사무실에서 데스크톱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A4 크기 노트북PC를 급속히 대체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이 제품이 액정패널의 가격하락으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면서도 가격은 노트북 PC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노트북PC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공간절약 요구에도 부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휴대 동영상 전송장치 개발

일본 마스시타통신공업이 도쿄전력시스템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휴대가 간편한 저가의 무선 동영상전송시스템을 개발, 올 가을 상품화한다.

휴대형 전송기와 송신기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송신기의 경우 중량이 기존 제품의 약 3분의 1인 7백50g으로 가벼워 허리띠에 고정시켜 사용하면 현장에서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 송신 안정성이 뛰어난 스펙트럼확산(SS) 방식을 채택하고 전송에 주파수 2.4GHz대를 사용해 방해전파나 노이즈 등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으며, 통신거리는 1 km다. 동영상의 경우 초당 최대 30프레임까지 전송하고, 시속 75 km의 이동물체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보낼 수 있다.

시스템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반도체의 고집적화와 양산가능한 부품의 채용으로 기존 대형 시스템(1천만엔 이상)의 10분의 1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새 휴대형 오디오기기 개발

일본전신전화(NTT)와 고베제강소는 네트워크를 통해 받은 음악이나 음성을 저장해 들고 다니면서 재생할 수 있는 최신 휴대형 오디오기기인「솔리드오디오(가칭)」를 공동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솔리드오디오는 인터넷이나 역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 받은 음악, 뉴스, 학습프로그램을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테이프나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에 저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진동을 받아도 음질의 떨림이 없는 게 특징이다. 솔리드오디오는 NTT가 개발한 음악정보 압축 기술과 고베의 디지털신호처리 장치(DSP) 기술을 통합해 개발한 것으로 크기는 신용카드 정도이며 두께는 8mm 무게는 45g이다. 저장용량은 데이터 압축률에

따라 다르지만 CD수준의 음질은 25분, FM라디오방송의 경우 50분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NTT와 고베는 솔리드오디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전담팀을 발족하고 음악정보를 제공할 소프트웨어 업체와 관련기기의 생산·판매를 위탁할 업체도 모집할 계획이다.

### DVD플레이어용 시스템 온 칩양산

일본 마쓰시타전자공업이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플레이어용 시스템 온칩을 개발, 양산에 들어간다.

마쓰시타전자가 개발한 제품은 DVD에 압축 보존된 영상정보를 일반 영상으로 복원하는 D램 혼재형 시스템 온칩으로 4M급 이상의 D램을 여러 기능과 함께 원칩화한 점이 특징이다.

마쓰시타전자는 이 칩을 우선 9월 마쓰시타전기산업이 시판하는 DVD플레이어 최신 기종용으로 공급하고 이어 외부 판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스템 온칩은 여러 개 칩이 담당해온 기능을 1개 칩에 모두 집적한 것으로 소비전력이 낮고 처리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제품 소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시스템 온칩은 지금까지 작은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하는 기계용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돼 왔는데

대용량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DVD플레이어용으로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중남미 가전 생산기지 멕시코·동남아로 이관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이 중남미 현지의 가전제품 생산을 재편했다. 마쓰시타는 코스타리카·페루 등 남미 5개국에서 소규모로 추진해 온 컬러TV·오디오 등 AV기기 생산을 전면 중지하는 대신 그 제조를 멕시코와 동남아시아로 이관하는 대대적인 생산재편 조치를 최근 단행한다. 마쓰시타의 이번 조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미주자유무역권(FTAA) 구상의 등장 등 미주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무역자유화 움직임에 대응해 생산력 집중을 통해 제조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쓰시타가 AV기기의 생산을 전면 중지한 곳은 코스타리카와 페루를 비롯해 과테말라·엘살바도르·베네수엘라 등 5개국 생산거점이다.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와 페루의 경우는 건전지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생산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남미의 AV기기 생산중 컬러TV는 북미지역 생산거점인 멕시코의 바하카리포르니아 마쓰시타전기로 집약했다.